지난 27일 두산과의 잠실경기에서 3-6으로 져 9연패에 빠진 KIA 선수들이 고개를 숙인 채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동료 실책에 화 벌컥…평정심 잃고 ‘자해 소동’

부끄럽다 ‘프로 KIA’

벤치 조급증까지 겹쳐 팀 창단 후 최다 9연패 수렁

연패 수렁에 빠진 호랑이들 2009년은 잊어라.

KIA 타이거즈가 지난 27일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9연패를 당하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2001년 팀 창단 후 최다 연패(8연패)기록을 갈아치운 KIA는 전신 해태시절 연패기록과도 타이를 이루고 있다.

이번주 1위 독주중인 SK와의 홈경기에 이어 주말 대구로 건너가 3위 삼성과 만나야 하는 만큼 불명예스러운 연패 행진의 끝은 장담할 수 없다.

순위도 급락했다. ‘종이 호랑이’로 몰락한 KIA는 3위에서 6위까지 주저앉았다. 선수들의 프로답지 못한 자세와 벤치의 조급증이 합작한 재앙이라는 게 KIA 안팎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부진한 타선이 갈 길 바쁜 KIA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지난해에도 KIA의 팀타율은 최하위를 맴돌았다.

올해도 0.254의 팀타율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큰 재미를 봤던 ‘한 방’도 잠잠하다.

KIA는 올 시즌 51개의 홈런으로 전체 꼴찌를 달리고 있다. 오히려 한 방 욕심에 흐트러진 타격 밸런스에 촘촘한 팀 플레이가 사라졌다. ‘한 방의 역설’이다.

장타력에 초점을 맞추고 올 시즌을 준비했던 선수들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타 더하기에 나섰던 이용규·김원섭이 타격감이 흔들리면서 테이블 세터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다.

나지완은 끝없는 믿음에도 0.221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홈런도 7개에 불과하다.

믿었던 마운드도 동반 침몰하고 있다. 올 시즌 KIA의 블론 세이브는 13개에 달한다.

손영민-곽정철-유동훈으로 구성된 필승 계투진 ‘SKY 라인’이 벤치의 조급증에 위력을 잃었다. 4월 조급한 경기 운영으로 과부하가 걸렸던 불펜진은 투수교체 타이밍 실패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재정비 시기를 놓쳤다.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고군분투했던 선발진들도 탈이 났다.

평정심을 잃은 윤석민이 ‘자해 소동’을 벌인 끝에 로테이션을 이탈 했고, 선발 한 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이드암 전태현도 심한 기복을 보이며 다시 2군으로 추락했다.

골든 글러브에 빛나는 로페즈도 신뢰를 잃었다. 마운드에서 동료의 실책에 화를 내는 등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로페즈는 구위까지 흔들리면서 단 1승을 거두는데 그치고 있다.

‘조급함’은 전력누수도 불러왔다. ‘해결사’ 김상현은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수에서 자리를 지키다가 수술대까지 올랐다. 벤치와 본인의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복귀를 서둘렀던 김상현은 이번에는 우측 종아리 부상으로 2주나 자리를 비우게 됐다.

오른쪽 팔꿈치에 물이 차 재활군 신세가 됐던 박기남도 조기 복귀를 했다가 부상이 재발했다. 일정한 보직 없이 ‘마당쇠’ 역할을 했던 불펜 김희걸도 재활군에 다녀왔다.

V10의 ‘유쾌한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은 아닌지, 팬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타차 완벽 우승…커, 세계랭킹 1위 도약

웨그먼스LPGA챔피언십 최종

김송희 준우승…신지애는 3위

크리스티 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커는 2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힐 골프장(파72·6천50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둘러 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여유있게 우승했다.

김송희(22·하이트)가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커와 무려 12타차(7언더파 281타)나 났다.

맹장 수술을 받고 투어에 복귀한 신지애(22·미래에셋)는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함께 공동 3위(5언더파 293타)에 올라 체면은 세웠다.

이미 3라운드에서 8타차 단독 선두로 나섰던 커는 4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6개를 쓸어담는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2007년 US여자오픈 이후 두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이자 LPGA 투어 통산 14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은 33만7천500달러.

지난 21일 스테이트팜 클래식에서도 우승한 커는 또한 28일 오후에 발표될 세계랭킹에서도 미야자토를 제치고 미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전반에 이미 2타를 줄인 커는 사실상 우승을 예약했고 후반에 들어서면서 관심사는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수 있느냐였다.

미야자토는 준우승을 차지하면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마지막 홀에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미야자토는 18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면서 공동 3위로 밀렸고 커는 버디를 낚아 메이저대회 우승과 세계랭킹 1위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커는 “이렇게 어려운 코스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라며 기뻐했다.

한편 한국선수들은 김송희와 신지애에 이어 김인경(22·하나금융)이 공동 5위(4언더파 284타), 박인비(22·SK텔레콤)와 강지민(30)이 공동 7위(3언더파 285타)에 오르는 등 톱10에 모두 5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합뉴스

크리스티 커(미국)가 28일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기보배 ‘태극마크’

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 남녀 8명 확정

기보배(광주광역시청),오진혁, 윤옥희(예천군청) 등 8명이 오는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양궁 국가대표로 뽑혔다.

오진혁은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국가대표 평가전 3차 대회에서 6점을 얻어 1~3차전 배점 합계 22점으로 남자부 1위에 올랐다. 김우진(충북체고 3년)이 20점으로 2위, 이창환이 19.5점으로 3위가 돼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들었다.

여자부에서는 윤옥희(예천군청)가 3차에 8점을 추가하면서 합계 21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주현정(현대모비스)과 김문정(청원군청)이 각각 2,3위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한편 지난 2차 선발전까지 합계에서 남녀 1위를 달린 임동현(청주시청)과 기보배(광주광역시청)는 일찌감치 국가대표로 확정돼 남녀 각 4명씩 총 8명이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됐다. /연합뉴스

‘장타자’ 왓슨 생애 첫 우승

PGA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위창수 21위

‘장타자’ 버바 왓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왓슨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리버하이랜즈 TPC(파70·6천844야드)에서 열린 PGA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총상금 600만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로 코리 페이빈, 스콧 버플랭크(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친 왓슨은 연장 두 번째 홀인 16번홀(파3)에서 파를 잡아 버플랭크를 제치고 우승했다.

왼손잡이 왓슨은 올해 드라이버샷 평균거리에서 304.5야드로 1위에 올라 있고 지난해 311.3야드로 2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은 내리 1위를 차지했던 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다. /연합뉴스